



여름철 반려견 ‘털 자르기’의 진실은?

여름이 되면 반려견의 털을 잘라주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반려견이 더위를 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동물의 털은 여름에는 몸을 식혀주고 겨울에는 데워주는 역할을 한다. 반려견의 털도 더위로부터 피부 손상을 막는 일종의 단열재 역할을 한다.

털은 동물들이 지닌 자연적인 냉각 시스템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털을 자르면 과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름에는 가능한 한 반려동물 털을 자르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적어도 일 년에 두 번은 털을 잘라주는 것이 좋다. 심하게 뭉친 털을 제거하고 털로 뒤덮였던 피부가 숨을 쉬고 오래된 털을 속아냄으로써 새 털이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시기는 봄이나 가을이 좋다. 기온이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아 반려견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 반려견을 위해 여름에 할 수 있는 일

그렇다면 반려견이 여름을 잘 나도록 어떻게 도와



▲ 사진=shutterstock

줄 수 있을까?

▶ 집 안을 시원하게 유지한다.

창문을 열거나 에어컨 또는 선풍기를 켜서 집안을 시원하게 한다. 선풍기보다는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선풍기가 유일한 선택지라면 반려동물 가까이 놓아 준다.

▶ 시원한 물을 준비한다.

반려견이 마시는 물이 미지근해졌다면 찬물을 섞어주도록 한다. 그리고 물통이 늘 깨끗하고 신선한 물이 담겼는지 확인한다.

▶ 매트 혹은 침대

반려견이 쉬는 매트나 침대 재질이 합성 소재라면 더위를 유발할 수 있다. 낡은 침대 시트로 반려동물 침대를 덮어주거나 새 침대를 사줄 수 있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편안하고 안락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 영킨 털

앞서 언급했듯, 털은 단열재 역할을 하여 반려동물의 더위를 막아준다. 그러나, 털을 잘 빗겨주지 않았다면 털이 영킨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여름이라고 해도 털을 잘라주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의 여름 나기를 위해서는 털을 꼭 잘라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용은 다른 계절에 하고 다른 방식으로 더위를 이겨내도록 돕자.

반려묘의 행동에 담긴 속마음은?

동물은 말은 못 해도 몸짓과 태도로 생각보다 많은 걸 알려준다. 오만방자한 태도로 매번 집사를 부리는 고양이도 마찬가지이다.

1. 어디든 따라간다옹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시도 때도 없이 발바닥의 찰싹떡을 들이대는 냥이라면, 더 볼 것도 없다. 24시간을 함께해도 그리운 상대가 바로 당신입니다!

2. 얼굴을 맞대고 부비부비 한다옹

애교 많은 고양이라면 평범한 스킨십은 영 성에 차지 않는다. 얼굴을 대고 냄새를 잔뜩 묻혀 영역 표시를 제대로 한다. “넌 내 거야.”

3. 눈을 깜빡깜빡 한다옹

고양이의 왕크는 사람으로 치면 미소와 같습니다. 특히 냥이가 천천히 눈을 깜빡이면 경계심을 완전히



▲ 사진=shutterstock

풀어버린, 대단히 편한 상태라는 뜻이다.

4. 가르렁가르렁 골골

기분 좋을 때 골골대는 냥이. 쓰다듬어 줄 때 이 소리를 낸다면, 그건 분명 “지금 좋으니까, 멈추면 안

돼!” 는 말이다.

5. 발라당 배를 드러낸다옹

등을 대고 누워 출렁이는 배를 보여주는 고양이. 이보다 더 큰 신뢰의 표시는 없다! 고양이에겐 있어 배는 대단히 취약한 부위이기에, 웬만해서는 무방비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6. 선물을 가져다준다옹

고양이가 죽은 쥐나 새를 물어와 당신 발치에 내려놓는다면? 놀랄 수도 있으나 이는 냥이의 가족 사랑이 묻어나는 행동이다. “넌 사냥도 못 하잖아, 이거 먹어!”

7. 손을 꼭 깨문다옹

냥이가 당신의 손을 가볍게 깨무는 것은 “예뻐서 널 깨물어주고 싶어.” 라는 뜻이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최고의 기술
정직한 시공

최저가격 보장!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및 각종 리모델링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